

‘이동관 탄핵안’ 본회의 보고... 여야, 강대강 대치

민주, 검사 2명 포함 오늘 처리 방침...국힘, 철야농성 여론전

김 의장 개의 가능성 높아... 통과되면 尹정부 두번째 장관급 탄핵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여야가 날카롭게 대치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고된 탄핵안을 다음 날 바로 표결에 부쳐 속전속결로 탄핵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태세다. 이번 표결은 지난 9일 탄핵안 처리가 무산된 데 이어 2차 시도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안 발의를 '정쟁 수단', '탄핵 남발'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본회의 개최 자체가 부당하다고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 168명이 발의한 이 위원장과 검사 2명 각각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2시 31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튿날인 1일 오후 2시 31분 이후부터 투표에 부칠 수 있는 것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기한 내에 본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민주당이 168석인 압도적 의석 우

위로 무리 없이 가결할 수 있다.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이 통과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장관급 탄핵안이 국회를 넘는 것이다.

이날 탄핵안 보고는 민주당이 지난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보고 후 표결에 실패한 뒤 3주 만에 이뤄졌다. 그런 만큼 민주당은 이번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버리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본회의를 열어줄 가능성이 크다. 김 의장은 그동안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개최에 미온적이었지만, 이번 이를 연속 본회의 개최는 양당이 정기국회에 돌입할 때 거론된 날짜이기에 정치적 부담을 다소 덜었다.

국민의힘은 당초 이 기간에 처리하려 했던 내년도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회의 개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는) 정기국회 전 예산 합의(처리)를 위해 합의된 의사일정"이라며 김 의장에 대해 "75년 동안 국회에서 지켜진 관행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직전부터 의정실 앞에서 철야 농성을 예고하며 연좌 농성에 돌입했다.

탄핵안 내용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상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며 "엄중하게 행사돼야 할 탄핵이라는 국회 권한을 정쟁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에 검사 2명 탄핵소추안과 동일하게 '검찰청법에 의해' 탄핵 소추한다고 적었다가 철회 후 재발의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해프닝"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취임 후 단 2명의 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9건 안건을 의결했다며 하루빨리 직무를 정지시켜 '방송 장악'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될 때 민주당 박광온 당시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에 '본회의 일정 11월 30일과 12월 1일'이 잡혀 있다"며 "예산안 통과를 위해 잡힌 본회의"라고 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본회의 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 불법자금 수수 유죄 징역 5년

민주연구원 부원장... 대장동 관련사건 첫 1심 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부정 수수 혐의액 10억 3700만원 중 7억7000만원은 실제로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 가운데 6억7000만원에 대해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남욱씨에게는 징역 8개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른바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 중 첫 1심 판결로, 상당한 액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나오면서 이

대표 등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지난 5월 4일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 지 210일 만이다.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씨와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총선 브리핑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서구 갑 출마"

"국가 운영 시스템 복원 앞장"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역대 최악의 민생 위기 상황을 비판하며 '부자 광주'를 만들기 위해 내년 총선에서 광주 서구갑 출마를 공식화했다.

조 전 부시장은 최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민생 위기 상황에도 야당·언론 탄압, 국민 갈라치기 등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고 무너진 국가 운영 시스템 복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30여 년간 기획재정부 등 중앙 정부 근무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회 예산안 중要害하는 등 '부자 광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조 전 부시장은 "광주시 부시장 재임 당시 2조원 초반의 광주 국비 예산을 3조원대로 증액한 성과



를 이뤘다"며 "민생 예산에 전 문성을 갖춘 준비된 민생-예산 통으로서 광주 국비 예산 4조 원대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무 도심융합특구 구축과 인공지능(AI) 단지 공동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끌어와 광주를 AI 산업, 미래 모빌리티 산업 등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 전 부시장은 기획재정부 등의 중앙 정부 요처에서 근무하고 민선 7기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등 민생-예산과 관련된 임무를 맡아 '예산통'으로 평가 받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민주 "엑스포 유치전 참패, 심각한 국격 추락"

"외교력 한계 다시 진단해야"... 박진 외교장관 "국민께 송구"

더불어민주당은 2030 세계박람회 유치전에서 부산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참패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며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판 여론을 진화하고 지역 민심을 달래는 데 힘을 쏟았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장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측은 정확한 정보에 입각해야 한다"며 "느낌이 틀렸다" 하는데, 대통령이 무슨 점쟁이인가"라고 반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민관 접촉으로 저희가 느꼈던 예측이 빗나간 것 같다"며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사과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영호 의원 역시 "유치 실패가 단지 대통령이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며 "대통령 보고 라인이 정상적이었는지, 실무 문제는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운영역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엑스포 유치 실패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정보력 부재와 외교력 한계를 드러낸 만큼 국가 역량을 다시 진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북구·강서갑을 지역구로 둔 전제수 의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녁'에서 "심각한 국격의 추락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지난 70년 동안 쌓아온 외교 역량의 총체적 붕괴"라며

"29표를 받은 것은 A부터 Z까지 잘못된 것으로, 표 계산과 득표 전략이 잘못됐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기현 대표는 엑스포 유치 불발로 인해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등 지역 현안 사업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김 대표는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우리가 할 일은 낙심하고 기실 부산 시민을 위로하고 부산 발전을 끝내나 갈 과제들을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엑스포 부산 유치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축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철거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대림인더스트리(주) 법인설립
-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오벌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업체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리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